



## 1. 정치·외교 현황

### 가. 근대 정치연혁

####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몰락과 정치적 혼란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 종식과 함께 몰락함에 따라 전쟁종식 후 전쟁 포로들이 볼셰비키 혁명사상을 가지고 러시아에서 귀환하여, Bela Kun이 주도하는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을 설립함.
  - 1920년 Trianon조약으로 헝가리 영토는 288,000km<sup>2</sup>에서 93,000km<sup>2</sup>로, 인구는 1,820만에서 760만으로 크게 감소함.
- 이후 133일 동안의 공산주의 폭정을 타도하고 헝가리 국민군 최고 사령관인 Miklos Horthy제독의 지도하에 우파 정권이 수립됨.
  - Horthy의 우익 독재 정권은 1930년대에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영토회복을 목적으로 나치와 연합하면서 독일과 동맹을 유지함.

## II. 정치 및 경제 현황

- 1944년 10월 소련군의 침공으로 Horthy 정권은 붕괴하고, Ferenc Szalasi를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함. 소련군이 독일군을 격퇴시키자, 헝가리에서는 공산당이 포함된 연립정부가 수립되었고, 1945년 11월 최초로 자유선거가 실시됨.

### □ 공산당의 의회장악과 강압적인 공산화 전개

- 1947년 국유화 및 일당체제를 기조로 한 공산당이 조작선거로 최다득표에 성공, 좌파계열이 271석, 반대세력이 240석을 차지하여 좌파 단독정부가 수립됨.
- 친소련 공산집단은 Matyas Rakosi의 지도하에 민족주의 성향의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였고 1952년 Rakosi는 당 지도자와 총리의 지위를 동시에 장악함으로써 1953년까지 스탈린주의가 성행함.

### □ 개혁적 성향의 공산주의 정부 등장과 무산된 저항운동

-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후 Rakosi 체제가 약화되고 Imre Nagy가 이끄는 개혁적인 공산주의 정부가 출범함. Nagy는 내각에 비공산주의자들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탈퇴하고 중립국이 되는 안을 제시하기도 함.
  - 후르시초프는 이에 반대하여 단호한 제재조치를 취하였고, 이는 1956년 10월 23일 부다페스트에서 'Rakosi의 재판회부, 생산쿼터의 철폐, 소련과의 교역관계 재협상, 시민권 및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 소련군의 철수' 등을 요구하는 혁명을 유발함.

- 11월 4일 소비에트 적군의 침략으로 12월 중반 모든 저항운동이 무산되고, Janos Kadar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 총재가 정치적 통합 임무를 맡게 됨.
- Kadar는 1960년대 초부터 온건하고 개혁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경제개혁을 시도하여 헝가리를 개혁적 공산주의 체제로 이끌었음.
- 1968년 헝가리는 '신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 개혁임.
- 시장친화적인 시스템은 농산물과 소비재 생산의 붐을 일으킴. 그러나 1973년, 1979년의 오일 쇼크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개혁성과가 반감되었고, 교역조건 악화와 서구기술 및 소비재에 대한 과도한 수입으로 1980년대 총 외채는 110억 달러에 이르게 됨.

#### □ 탈 공산주의 과정

- 1987년 Kadar는 국민을 정책결정에 참여시키겠다고 공언하였고, 1988년 공산당 임시 전당대회에서는 공산당원들까지도 개혁을 옹호하였음.
- 1980년대 후반까지 공산당을 이끌었던, Imre Pozsgay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법적·합리적 정통성을 바탕으로 좀 더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함.

## II. 정치 및 경제 현황

- 1980년대 말 헝가리 MSZMP를 비판하는 정치조직이 탄생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988년 9월에 창설된 헝가리 민주포럼(MDF)이었음. 1989년 4월 소련군대가 철수되면서, 개혁파가 힘을 얻게 되었고 동유럽 최초로 복수정당제가 도입됨.
- 1989년 10월 23일 헝가리 인민공화국은 헝가리 공화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MSZMP는 스스로 헝가리사회당(MSZP)이라 개명하고 공식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함.

### 나. 공산정권 붕괴 이후의 정치상황

#### □ 탈 공산화 이후 안정적인 정권교체

- 탈 공산화된 헝가리는 1990년 이래로 5차례 민주적 총선을 통해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간의 정권 교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06년에는 중도 좌파가 연속하여 집권함.
- 현 정권 이전의 네 정권 모두 여당이 다수당이었고, 1990년 이래 4~5개의 정당이 의회에 들어와 정당 정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정치적 안정은 1999년 3월 NATO 가입과 2004년 EU 가입승인으로 강화되었음.

#### □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순차적으로 정권 장악

- 1990년 의회선거에서 야당인 MDF가 독립소지주당(FKGP) 및 기독교민주국민당(KDNP)과 연합정부를 구성하였고, 자유민주연맹

(SZDSZ)과 청년민주연맹(Fidesz)이 MSZP와 함께 대항하였음. MDF의 당수인 Jozsef Antall이 최초의 비공산당 출신 총리가 되었으며, 제도적 개혁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지출 계획의 치밀성 부족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에서 모두 적자를 보는 쌍둥이 적자 구조를 갖게 됨.
- 1994년 5월 선거에서 MSZP가 정권을 되찾음. MSZP는 SZDSZ와 연합정부를 구성하여 1995년 3월 재정적자 및 경상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안된 긴축프로그램인 “Bokros Package”를 실시함.
- 1997년 이후 정부의 정책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실질 GDP 성장률이 탈 공산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회복 시점이 늦어 MSZP는 다음 선거에서 보수당인 Fidesz에게 밀려남.
- 1998년 총선에서 Fidesz는 MDF, 독립소지주정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였으며, 강한 정부에 기반을 둔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 2002년 총선에서는 MSZP와 SZDSZ가 다시 연합정부를 구성하였음. Fidesz와 MDF는 야당이 되었고 이 외의 정당은 의회진출의 최소요건인 5% 득표에 실패함. MSZP의 폭력 시위 논란과 새로운 총리가 공산당 정권의 첩보원이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MSZP가 대승을 거두었음.
- 그러나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려던 시도가 실패하였고, 헝가리 중앙은행도 통화정책에 실패하여 포린트화의 가치가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임(2003).

## II. 정치 및 경제 현황

- 이로 인해 2004년 5월 EU 가입에도 불구하고 Fidesz가 2004년 6월 유럽 의회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총24석 중 Fidesz 12석, MSZP 9석).
- Medgyessy 총리(무소속)가 SZDSZ 출신의 장관을 해임하자 SZDSZ는 연합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연정붕괴 및 조기총선 참패를 우려하여 MSZP역시 Medgyessy에 대한 지지를 철회, 8월 8일 사임하게 됨.
- 이후 Ferenc Gyurcsany가 총리로 임명되었고, 2006년 4월에 MSZP가 총선에 승리하여 SZDSZ와의 연합정부가 재구성됨. 이 연합정부는 386석 중 210석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2002~06년 보다 12석이 늘어난 수치임.

### □ 2008년 4월 연립정권 붕괴

- 2005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여권연합(MSZP, SZDSZ)이 단일 후보 합의에 실패하면서 보수성향의 야권연합(Fidesz, MDF)의 라슬로 소운(Laszlo Solyom)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페렌치 슈르차니(Ferenc Gyurcsany)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당은 2006년 총선에서 의회내 소수 정당으로 집권하였으며, 이후 야당인 SZDSZ와 연립정부를 구성함.
- 2007년 의료개혁을 둘러싼 이견(슈르차니 총리가 SZDSZ 소속의 보건부 장관을 해임)으로 SZDSZ가 연정을 탈퇴함. 연정이 붕괴되면서 불안한 정치상황 및 이에 따른 개혁 지연현상이 나타났음.

□ 2009년 4월 과도(위기관리) 내각 출범

- 2009년 3월 2010년 임기를 앞두고 있던 쥘르차니 총리가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임으로 중도 퇴진하였으며, 4월 MSZP의 동의에 따라 고르돈 바이너지(Gordon Bajnai) 총리의 과도 내각이 들어섰음.

- 바이너지 총리는 전 국가개발경제부 장관 출신으로 소속정당이 없으며, 국정운영에 있어 일자리 창출, 포린트화 안정, 재정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바이너지는 일부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긴축 재정정책을 추진 중임.

<표 II-1> 내각 주요인사

구 분	명단(소속정당)	비 고
대통령(국가원수)	Laszlo Solyom (SZDSZ)	2005년 8월 당선(임기 5년)
총리(국정실권)	Gordon Bajnai (무소속)	2009년 4월 당선(임기 4년)
재무부장관	Peter Oszko	
외무부장관	Peter Balazs	
중앙은행 총재	Simor Andras	

자료 : 필자정리.

□ 2010년 4월 총선에서 정권교체 예상

- 2009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1야당인 중도우파 Fidesz가 전체 22석 중 절반이 넘는 14석을 차지하였음(MSZP 4석 차지).

## II. 정치 및 경제 현황

- 2009년 8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 정당을 결정한 유권자 중 68%가 제1야당인 Fidesz를 지지하고 있으며, 여당인 MSZP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16%에 그침. 조사 대상 전체의 지지율로도 Fidesz가 45%로 13%인 사회당 지지율의 3배를 넘어섬에 따라 차기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II-2> 총선결과 의석분포 비교

정 당	2006.4	2002	1998	1994
헝가리 민주포럼(MDF)	11	24	17	38
헝가리 민주당(MDNP)			0	17
자유민주연맹(SZDSZ)	20	20	24	69
독립소지주당(FKGP)			48	26
헝가리 사회당(MSZP)	190	178	134	209
청년민주연맹(FIDESZ)	164	164	148	20
기독교민주국민당(KDNP)			해체	22
헝가리 정의당(MIEP)			14	
무소속	1		1	2

자료 : [www.electionresources.org/hu](http://www.electionresources.org/hu)



## 다. 대외관계

### □ 대외협력 관계 강화 모색

- 기존 EU 회원국과는 개별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2005년 1분기에는 프랑스와의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합의 문서를 별도로 체결하였고, 특히 중국의 대 EU 판매거점으로 중국과는 무역과 투자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이후, 동년 12월 EU 헌법을 비준하였고, 크로아티아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 2006년 중반 이후 슬로바키아와 대립 상황 악화

- 2006년 6월 슬로 바키아 총선 이후, 극우성향의 국민당(SNS)이 연정을 구성함에 따라, 의회에서 자국 내 헝가리 소수민족<sup>1)</sup>에 대한 비방(민족주의 자극) 및 적대적 태도, 독일인 및 헝가리인 소유 부동산 이양조치("Benes Decrees of 1945") 등이 현안으로 다루어져 양국간 긴장이 조성되었음.
- 2008년 10월, 헝가리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슬로바키아 정부의 자국 내 헝가리 소수민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양국간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음.
  - 헝가리인 학교의 교과서 지명표기에서 헝가리식 이름을 병용하겠다는 당초 약속 파기한 바 있음.

1) 슬로바키아 인구 540만 명 중 10%는 헝가리 민족(마자르족)임.

## II. 정치 및 경제 현황

- 2009년 8월 21일 쇼요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코마르노에서 개최되는 11세기 헝가리 국왕 성(聖) 슈테판 1세 동상 공개행사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슬로바키아 정부가 이를 거절하는 사건 발생하였고<sup>2)</sup>, 또한 공적 업무 시 슬로바키아어 사용을 의무화한 개정법을 두고도 양국간 민족감정 대립이 고조되고 있음.

## 2. 경제 현황

<표 II-3>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지표 비교  
(2008년 기준)

단위 : 억 달러,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GDP	1,547	5,257	2,165	954
인구(백만 명)	9.9	38.1	10.2	5.5
1인당 GDP	15,626	13,795	21,225	17,345
경제성장률	0.6	4.9	3.0	6.4
실업률	7.8	9.8	5.4	7.7
소비자물가상승률	6.1	4.2	6.3	4.4
재정수지/GDP	-3.7	-1.9	-1.0	-2.2
상품수출	1,066	1,773	1,457	726
상품수입	1,065	2,017	1,394	736
경상수지/GDP	-8.4	-5.4	-3.1	-6.7
외환보유액	336	622	367	..
총외채잔액	1,861	2,279	807	..
D. S. R.	26.7	21.4	10.1	10.0
환율(연평균, 달러)	172.11	2.41	19.35	1.39

자료 : EIU, *Country Report* 및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2009.

2) 이와 관련, 주 헝가리 슬로바키아 대사관에 화염병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 가. 국내경제

### (1) 최근 경제동향

<표 II-4>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f</sup>
경제성장률	3.9	4.0	1.2	0.6	-7.0
재정수지/GDP	-7.0	-8.1	-4.4	-3.7	-4.0
소비자물가상승률	3.6	3.9	7.9	6.1	4.3

자료 : IMF, IFS, 2008 및 EIU, *Country Report: Hungary*, Nov. 2009.

#### 가) 경제성장

#### □ 유로존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률 하락

- EU에 가입한 2004년 4.8%의 실질 GDP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6년 말과 2007년 초 강력한 긴축재정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2007년에는 1.2%로 경제성장률은 급격한 둔화추세를 나타냄.
- 2008년에는 가처분 소득감소, 경기악화 및 개인채무 누적 이외에도 긴축정책의 지속적 시행으로 인하여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됨.
  - 헝가리 주요 무역상대국인 유로존의 경기침체 및 EU회원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 0.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II. 정치 및 경제 현황

- 2009년에는 실업률이 9%대로 높은 편인데다 IMF 차관지원 조건 충족을 위한 긴축 재정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10년 이후 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실물경기 2010년 이후 회복할 전망

- 2009년 3월까지 지속된 포린트화 약세로 크게 증가한 외화표시 가계대출(전체대출의 70%)의 원리금 상환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긴축 재정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실물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2009년에는 -7%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됨.
- 2008년 12월 이래 (2009년 3월, -15.6% 제외) 산업생산증가율은 20%대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건설업은 금년 6월 들어 15.9%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종합주가지수도 대외투자자산 회수 움직임으로 2007년 말 26,236에서 2008년 10월말 13,506로 급락하고 2009년 2월에는 10,109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완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종합주가지수: 13,506(2008.10) → 10,190(2009.2) → 20,226(2009.9)

### 나) 재정수지

### □ 재정수지 적자의 개선

- 2007년에는 공무원의 임금과 고용의 실질적인 감축, 투지지출 축소 등의 긴축 재정정책 시행과 더불어 간접세 수입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신흥유럽국가 평균치

인 0.4% 흑자와는 큰 격차를 보였음.

- 2008년에는 정부의 강도 높은 긴축 재정정책 시행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보다 다소 개선된 3.7%를 기록하였고, 2009년에도 IMF와 합의한 기준인 3.9%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금, 공공부문 임금 삭감 등이 계획되고 있어, 재정수지 적자폭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 소비자물가

##### □ 소비자물가의 급등현상 다소 진정

- 신흥유럽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헝가리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07년 중 식료품 가격(11.5%), 연료 및 전기요금(24.6%) 상승으로 8%에 근접함.
- 2008년 상반기 중 유가 및 식료품 가격상승으로 소비자물가는 상승조짐을 나타내다가, 하반기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제유가 및 식료품가격이 오히려 급락하며 상승률이 둔화되어 6.1%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부가가치세가 인상(20%→25%)되기는 하였으나, 식료품 및 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8%로 오히려 하락하였고, 포인트화가 강세를 보여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음.
  - 그러나 7월 현재 에너지나 서비스 부문의 물가상승률이 각각 전년 대비 7.7%, 6% 상승하여 전반적인 2009년도 물가상승률은 4.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앙은행의 중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 3% 기준 1% 포인트 이내 밴드 운용

라) 금융

□ 외화차입 비중 확대

- 헝가리에는 34개 은행이 있으나 대부분 외국계은행이며, 헝가리 소유은행은 거의 없음. 자산기준 시장점유율의 82~90%를 차지하는 8대 은행 중 헝가리 은행은 OTP은행 하나에 불과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외화차입 비중이 전체의 70%에 달하였고 헝가리 정부도 공적해외차입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마침내 IMF 차관을 받게 됨.
  - 특히 리스크해징 수단이 제한적인 가계부문 차입이 대부분 헝가리보다 차입금리가 낮은 스위스 프랑이나 유로화로 이루어지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포린트화 약세로 인한 외채상환 부담이 커져 연체율이 더욱 상승하게 된 것임.
  - 외화대출로 인한 환위험 노출뿐만 아니라 실업률 상승(10%), 급여 동결 등도 가계대출에서 연체율 상승의 이유가 되었음.

□ 2010년 이후 금융시장 호전 예상

- 은행부문은 2008년 유동성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고, IMF 차관 지원으로 유동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2009년 4월 이후에는 무수익여신비율(NPL)이 2~4%로 추정됨.

- 헝가리는 소득·직업·자산을 고려한 대출을 실시하여 NPL이 4%에 불과하고,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커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낮음.
- 헝가리 은행 수익률은 2009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오히려 하락하였음. 부실 여신이 증가하면서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이 2008년 말 4%에서 2009년 6월말 6%로 상승함.
- 실물경기 침체로 2009년 중 부실자산 증가, 수익성 하락 등 어려움이 예상되나, 2010년부터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
- 국내금융시스템 붕괴, 외화표시 대출자산의 과다한 비중(70%이상), 외화차입을 통한 단기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2008년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부도 사례는 없으며,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확충으로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됨.
- 동유럽에 진출하여 있는 서유럽계(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은행들은 2008년 이후 부실자산 문제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악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에서 투자철수 및 M&A 발생 사례가 없음<sup>3)</sup>.

3) 영업지속의 이유는 동유럽이 성장잠재력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 경제정책

### 가) 재정정책

#### □ 긴축 재정정책 지속 시행

- 2007년 초에는 재정수지 적자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정부 재정, 교육 및 보건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및 재정지출 축소조치를 취함.
  - 2007~13년 제2차 국가개발계획이 추진 중이나, 인프라 구축과 공공부문개혁에 사용될 재원이 기본적으로 EU 기금(85%) 및 기타협조융자(15%)에서 마련되어,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헝가리 정부에 도움이 되고 있음.
- 헝가리 정부의 2010년 예산안은 2009년, 2010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6.5%, 0.9%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내년 재정수지 적자를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춘 GDP 대비 3.8%로 제한하는 목표 아래 편성되었음.
  - 재정적자 축소를 목표로 한 헝가리의 2010년 예산안이 2009년 11월 3일 의회에서 승인되었음. 동 예산안은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 지출 400억 포린트 및 지방정부 지원 700억 포린트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함.



## 나) 통화정책

### □ 2009년 들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리인하 정책

- 헝가리 중앙은행은 2006년 6~10월에 200bp, 2008년 1~5월 중 100bp의 금리인상 조치를 취한데 이어, 10월 23일에는 환율 방어 및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8.5%에서 11.5%로 300bp나 인상하였음.
- 2009년 8월에는 글로벌 금융환경이 개선되고 7월 유로본드 발행을 통해 재정적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였으며, 환율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기준금리를 위기이전보다 낮은 수준인 7%까지 인하(2009년 10월)하였음. 이후에도 외환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임.
  -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헝가리가 체코, 라트비아 등과 함께 2014년에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IMF 차관 지원조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9% 이내로 축소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경기부양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한 측면도 있음.

## 다) 구제금융 지원요청

### □ 2008년 10월 IMF, EU 및 세계은행의 긴급구제 금융지원

- 헝가리의 유동성문제가 불거지면서 2008년 10월 16일, 유럽중앙

## II. 정치 및 경제 현황

은행(ECB)은 헝가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50억 유로(73억 달러)의 긴급자금지원<sup>4)</sup> 계획을 발표함.

- 10월 28일 IMF(157억 달러), EU(81억 달러) 및 세계은행(13억 달러)은 총 251억 달러의 긴급구제 금융지원에 헝가리 정부와 합의함.

– IMF의 대기성차관<sup>5)</sup> 지원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안정성, 장기적으로는 투자신뢰 회복 및 금융시장 불안해소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 있음.

- 지원조건은 헝가리 정부의 해외차입 의존을 감축하기 위한 재정 통합 등의 구조조정, 사회지출 및 조세시스템 개혁, 긴축 재정 정책을 통한 공공지출 삭감 등임.

### □ 금융지원 이후 유동성위기 완화

– 헝가리는 2009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21억 달러를 인출하였으며, IMF 실사단의 제3차 경제상황 점검을 통해 2009년 상반기 말 정부 재정, 인플레이션, 외화보유액 등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만기를 2010년 10월 5일까지 6개월 연장하였음.

- 헝가리 정부는 2009년 4월 자국 금융시장에서 국채 발행을 재개했으며, 7월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10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채권(5년 만기) 발행에 성공하기도 함.

4) 유로존 이외 국가에 대한 최초의 직접금융지원 사례

5) 헝가리 IMF 쿼터의 10배에 해당

<참고 II-1> 헝가리 금융당국의 위기 대처 조치

□ 헝가리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은행부문 안정화 조치
  -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600만 포린트 → 1,300만 포린트)
  - 총 6천억 포린트 규모의 은행 안정화 자원 마련  
(헝가리계 은행에 대한 증자 및 보증 한도 제공)
  - 실업자 등의 부채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이 채무재조정을 유도하는 약정 체결
- 재정적자 축소 조치
  - 연금(13월 Pension) 삭감, 공공부문 급여 제한 등 비용 축소
  - 부가가치세(20~25%) 및 소비세 (주세, 담배세, 유류세)인상,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 축소(32%→27%) 등 세법 개정
- 산업 활성화 조치
  - 헝가리 개발은행을 통한 SME 지원 확대
  - 신용보증업체(Guarntiqua)에 대한 재보증 한도 확대 등

□ 헝가리 중앙은행

- 점진적 금리인하 단행 (기준금리 11.5% → 7.0%)
- Bail-Out Money 인출을 통해 외환보유액 증액
  - 2008.10월과 2009. 6월 사이 외환보유액 90억 유로 증가  
(2008.10 180억 유로 → 2008년 말 240억 → 2009년 6월 270억 유로 수준)
- 금융부문에 대한 유동성 제공
  - 기준을 인하(2008년 11월 , 5%→2%)
  - 포린트화 유동성 공급확대 및 외화 Swap Line 제공

- 헝가리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기준으로 336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의 2.7개월분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IMF 차

관을 받으면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여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5개월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라) 국가개발계획

□ 2007~13년 제2차 국가개발계획 진행 중

- 헝가리가 2004년 EU에 가입한 이후 헝가리 투자자들은 EU 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07년 7월 EU는 2007~08년 EU기금 사용을 위한 계획(action plan)과 함께 헝가리의 제2차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음.
- 2004~06년에 제1차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이 실행되었고, 2007~13년에 걸쳐 제2차 국가개발계획이 추진 중이며, 재원은 EU기금(85%) 및 기타협조용자(15%)를 통해서 조성됨.

□ 국가개발계획은 15개의 실행프로그램(OP)으로 분류

- 특정 지역 개발과 관련 프로그램 7건(각각 1,280억~4,190억 포린트), 정부개혁 및 구조조정과 관련된 프로그램 3건(총 2,280억 포린트)이 있음.
- 나머지 5개 프로그램은 경제개발 OP(투자규모 6,900억 포린트, Gazdasagfejlesztési), 수송개발 OP(1.7조 포린트, Kozle kedesi), 사회재건 OP(9,660억 포린트, Tarsadalmi megujulas), 사회인프라 OP(5,390억 포린트, Tarsadalmi infrastruktura),

환경 및 에너지 개발 OP(1.14조 포린트, Kornyezetes Ener-  
giafejlesztési)임.

- 전례 없는 EU지원금의 증가로 인한 프로그램 다양화로 지원의 구체적 유형에 관한 개요를 살펴보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가개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1~2개월 이전에 입찰 기회를 게시하고 있음 (www.nfu.hu).
- 입찰 지원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서류 및 요구사항 구비뿐만 아니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적인 검색이 필요함.

#### □ 간소화된 투자 절차와 객관적인 프로젝트 심사

- 경제위기 이후 투자계획에 있어 고용창출이 중요해졌으며, 투자절차가 간소화 되었음.
  - 정해진 기간 내에 EU기금은 지원하고, 관료적 행정에 대한 간소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6년 의회는 국가경제에 특별히 중요한 투자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법안(Act LIII)을 통과시킴<sup>6)</sup>.
- 수평적 개발계획 원칙으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인도, 미국 및 일본 등이 국가개발계획 프로젝트에 지원한 사례가 있음.
  - 개발 프로젝트의 선정은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통해 실시됨.

6) 동 법안은 EU의 지원을 받거나 헝가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투자 중 최소 50억 포린트 이상 혹은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 적용됨.

- EDOP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데, EU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 프로젝트 중 10만 유로 이상의 투자의 경우 연 1회 이상 EU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운용되고 있음.

## 나. 대외거래

### (1) 경상수지

#### □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추세 시현

- 2007년에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6.4%를 기록하여 전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이머징 유럽 국가의 평균치인 1.2%적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표 II-5>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f</sup>
경 상 수 지	-8,261	-8,610	-8,922	-12,980	-3,313
경상수지/GDP	-7.5	-7.6	-6.4	-8.4	-2.6
상 품 수 지	-2,728	-2,572	452	175	3,923
수 출	61,688	73,457	93,855	106,644	79,696
수 입	64,416	76,029	93,403	106,469	75,772
외 환 보 유 액	18,296	21,316	23,773	33,620	42,046
총 외 채 잔 액	66,119	108,132	149,052	186,087	150,476
총외채잔액/GDP	60.0	95.7	107.4	120.3	117.9
D. S. R.	30.1	32.5	26.3	26.7	29.7

자료 : IMF, IFS, 2009 및 EIU, *Country Report: Hungary*, Nov. 2009.

- 2008년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구매력저하에 따른 내수위축 및 헝가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는 -8.4%를 기록하였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경색 등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2009년 경상수지 역시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단, 수입 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줄어들어 GDP 대비 경상수지는 -2.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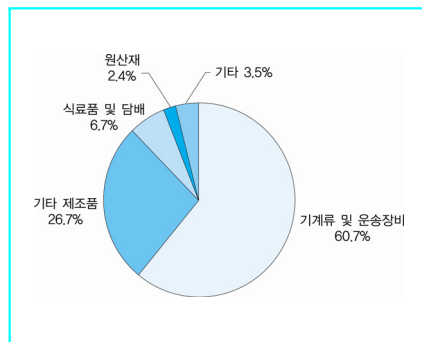
□ 무역규모(상품) : 수출 1,066억 달러, 수입 1,065억 달러

- 헝가리는 수출이 GDP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동서 유럽을 잇는 유럽 중심부에 위치하여 EU 회원국 간의 시장 형성의 근거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지난 10년간 수출의 역동적인 성장은 헝가리에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했기 때문이며, 헝가리의 70%가 넘는 수출이 외국인 소유 기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임.
  - 1990년대 중반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수출이 급성장 하였으며, 교역량은 약 20% 증가함.
-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은 2007년 6%로 완화되었으며 2008년에는 위기로 인해 3.4%만이 증가함. 2009년 수출은 교역 상대국 특히 독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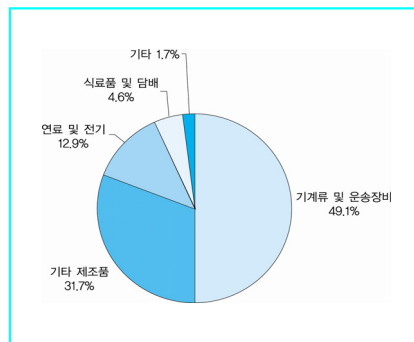
## II. 정치 및 경제 현황

-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 및 운송장비(60.7%), 기타 제조품(26.7%), 식료품 및 담배(6.7%), 원산재(2.4%)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 및 운송장비(49.1%), 기타 제조품(31.7%), 연료 및 전기(12.9%), 식료품 및 담배(4.6%)임(2008).

<그림 II-1> 주요 수출품의 구성



<그림 II-2> 주요 수입품의 구성



주 : 2008년 기준.  
 자료 : EIU Country Report, Nov, 2009.

<표 II-6> 헝가리의 주요 무역상대국 교역비중  
 (2008년 기준)

수출상대국	독일(28.3%), 이탈리아(5.5%), 프랑스(4.7%), 오스트리아(4.5%)
수입상대국	독일(26.8%), 러시아(6.9%), 오스트리아(6.0%), 중국(5.5%)

자료 : EIU, Country Profile, 2008.

- 예전에는 대외무역의 80%가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유럽 회원국과 거래되고 있음. 주요 수출국은 독일(28.3%), 이탈리아(5.5%), 프랑스(4.7%), 오스트리아(4.5%)이고, 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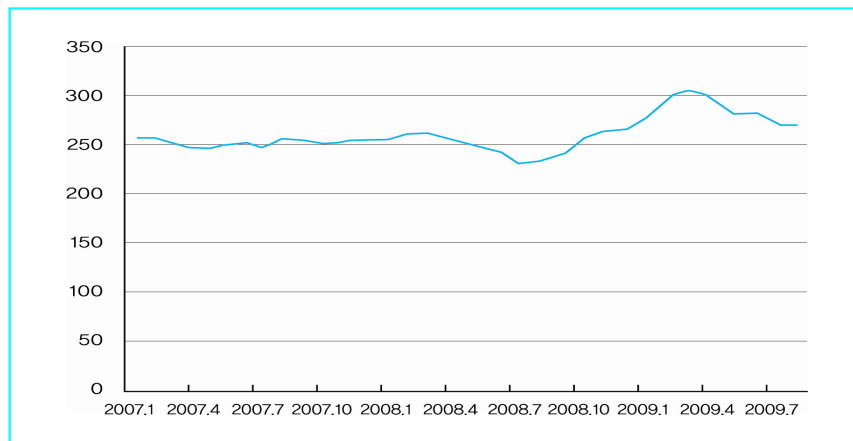
수입국은 독일(26.8%), 러시아(6.9%), 오스트리아(6.0%), 중국(5.5%)임.

□ 환율 안정 추세

－ 유로화 대비 포린트화 환율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권 투자자의 디레버리지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2008년 말 10월 261.1에서 2009년 3월말 309.2까지 상승하며 포린트화 가치가 급락하였으나, 2008년 3월 이후 서서히 안정되고 있는 추세임.

- 환율(유로화대비): 261.1(2008.10) → 309.2(2009.3) → 270.4(2009.9)
- 헝가리 포린트화는 1996년 이후로 태환 가능해졌으며, 헝가리 포린트화 환율은 유로화에 페그되어 운용 밴드는 ±2.25%임.

<그림 11-3> 유로화 대비 포린트화 월평균 기준환율 추이



자료 : EIU Country Report, Nov, 2009.

## (2) FDI 유입

### □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은 오히려 증가

- 기존 EU회원국이 유로화 강세에 따라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장기간의 운영권 보장 등의 외국인 투자우대 조치에 힘입어 외국기업의 지분투자 및 재투자가 활발히 발생하여 2002~05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 2006년 이후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증가, 투자 가치 하락 등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가 증폭되어 FDI 유입 금액도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 독일 다임러 그룹의 12억 달러 규모 투자(10월말 계약체결)가 이루어지면서 FDI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 늘어남.
- 2007~13년 제2차 국가개발계획이 진행 중이며, 모든 프로젝트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2010년 이후 경기회복으로 EU 등 선진권 투자자의 대외투자자산 회수 움직임이 완화되면 FDI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68억 달러(2006) → 56억 달러(2007)  
→ 65억 달러(2008)

## (3) 외채 현황

### □ 총외채잔액 소폭 감소 전망

- 2005~06년 유동성 증가에 따라 저금리의 외화신용이 가능해져 상

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외차입이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 총외채잔액이 급증하였고, 2008년 말 총외채잔액은 1,861억 달러에 달함.

- 2009년 총외채잔액이 소폭 감소함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GDP 대비로는 전년 120.3%에서 125.6% 수준으로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 D.S.R. 여전히 20% 상회

- 총외채잔액 증가, 포트폴리오 약세 및 국제금리 상승기조로 외채원리금 상환비율이 2005년에 30%를 상회한 이후 동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들어 20%대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20%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외채상환부담은 해소되지 않았음.

#### □ 외채상환태도

- 2008년 9월말 기준으로 OECD회원국의 ECA 인수 승인잔액은 단기 4.4억 달러, 중장기 10.6억 달러로 총 15.0억 달러에 달함.
  - 이 중 연체금액은 2.2억 달러, 전체의 14.4% 규모로 이탈리아 SACE에 대한 연체가 2.1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리스케줄링 실적은 없음.
- <표 II-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기외채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총외채잔액의 17%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상태이며, 총외채잔액 대비 공적외채 비중은 2006년 말 기준으로 26%로 총외채의 대부분은 민간부문의 해외차입으로 구성되고 있음.

## II. 정치 및 경제 현황

- 2008년 10월말 IMF, EU 및 세계은행의 구제금융을 받아 외채 관리에 허점이 노출됨.

<표 II-7> 외채관련 주요 통계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외채잔액	47,507	63,527	66,119	107,677	149,052
총외채/총수출	88.7	92.8	58.9	115.5	125.1
공적외채	16,473	21,093	21,216	28,017	..
단기외채	9,016	12,330	12,394	14,979	25,305
총외채상환액	15,403	17,539	23,509	30,828	..
(단기외채 이자상환)	375	610	620	675	..

자료 :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및 OECD CRAM, 2008.

- IMF 차관의 상당 부분이 외환보유액으로 충당되었으며, 금년 7월에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하여 외환보유액이 상당량 증가하였고 중앙은행은 1년 내 만기 도래하는 단기외채에 대해서 상환 가능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음.